

대학평의원회 총장선출제 특위 제안

이수형 기자 dltbd112@knu.ac.kr

대학평의원회가 새로운 총장선출제를 제안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지난 17일 열린 제5차 회의에서 대학평의원회는 교수, 직원, 학생(대학원생 포함), 동문 등 구성원 참여를 보장하는 새로운 총장선출 제도를 연구하고 범인에 제안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차기 제6차 평의원회에서 범인과 총장실 관계자에 선출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묻기로 했다.

경희대학교 노동조합 김종현 위원장은 “이화여대, 많은 수의 서울시내 사립대학들이 총장선출 과정에 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며 ‘우리대학에서도 시대의 흐름에 맞게 새로운 총장선출제도를 연구하고 제안할 ‘총장선출제 연구특위’ 구성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대학평의원회가 특별위원회를 꾸리고 독자적인 안을 범인에 제출한다 해도 현실화까지는 쉬워보이지는 않다. 기존 총장 선출과 관련된 제도와 절차상 이사회를 통해 정관이 바뀌지 않으면 특위의 제안이 현실화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특위는 연세대학교나 서울대 등과 같이 구성원으로부터 선출된 총장주천위원회를 제도화해 구성원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것을 목표로 할 것으로 보인다.

김종현 위원장은 “이미 지난 교수의회, 노동조합 등 대학평의원회 대표들이 특위를 구성해 새로운 총장선출제 안을 범인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도

화 채택 가능성을 물기 위해 차기 평의원회에서 범인과 총장실의 의견을 물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소재대학교 교수회연회의 대표이기도 한 이성근 교수의회 의장은 ‘회원대학 총장선출규정’을 배포하기도 했는데 이에 따르면 고려대, 서울대는 총장후보자 추천위원회(총추위)를 구성해 평의원회 혹은 이사회와 평의원회의 주천으로 총장 후보를 정하고 있다.

한편 이날 평의원회는 SPACE21 캠퍼스 노후시설 리모델링 사업을 위한 기체를 심의하고 학칙 일부를 개정하는데 동의했다. 대학

족이 제공한 계획안에 따르면 리모델링 1차 사업의 경우 서울캠퍼스 음악대학관이 14.3억, 문과대학관이 4.6억, 경대학관이 5억, 국제캠퍼스 외국어대학관이 34.8억원의 총 지원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1차 사업 기간은 올해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로 설정됐으며 9월 이후로는 2차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학교는 이번 리모델링 사업을 위해 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연리 2.3%(변동금리)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을 조건으로 총 58.8억원의 기체를 얻기로 했다. 이번 기체에 대해서는 2021년부터 원금상환이 진행되는데 원금 8.4억원과 이자 0.9억원이 순차적으로 상환될 것으로 평의원회에 보고됐다.

학칙과 관련해서는 소프트웨어 융합대학이 새롭게 편입됐으며 성적인정을 위한 최소 출석 요건도 2분의 1 이상으로 새롭게 규정됐다.



제5차 대학평의원회에서 학칙개정 내용을 보고 하는 교무처 지은림 처장.

한국외대 학생회, 총장선출 ‘모의투표’ 진행 “구성원 모두의 의견 반영하는 새로운 선출제 필요”

양윤혁 기자 yangyun0820@knu.ac.kr

한국외국어대학교(외대)에선 새로운 총장의 선출을 앞두고 분주한 모습이다. 51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선 총장선출에 투표권이 없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총장 모의투표’를 진행했다. 비대위 측은 해당 결과를 교수협의회와 이사회에 제출해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다.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6일간 진행된 모의투표에선 전체 유권자 9031명 중 1534명의 투표로 16.9%의 투표율을 기록했고, 기호 2번 유기환 교수가 472표(31.3%)의 득표로 1위에 올랐다. 현 총장인 기호 6번 김인철 교수는 44표(2.9%)에 그쳤다.

한국외대는 학생 대상 총장 모의투표를 진행했다

비대위 측은 현행 총장선출 제도를 바꾸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비대위 백유진 위원장은 “현행 총장선출 방식은 모든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없어 불합리하다”며 “교수의 대표자를 뽑는 만큼 총장선출은 구성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외대 교직원 노동조합(노조) 역시 ‘총장직선제’를 요구하고 있다. 전국대학노조 외대 지부 정준애 부지부장은 “총장선출은 대학 민주주의의 꽃”이라며 “총장선출이 몇몇에 의해 진행되면서 대학운영이나 발전에 구성원들의 요구가 차기 총장의 정책에 반영되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입장을 같이했다. 이어서 “모의투표

의 경우 현행제도를 오히려 강화할 수 있다고 판단해 노동조합은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외대 총학생회와 노동조합은 ‘총장직선제’로의 변화를 두고 뜻을 함께하고 있다. 정준애 부지부장은 “민주적 총장 선출을 위한 공동 대책 위원회(공대위) 자리에서 총장선출 방식을 논의하고 공동으로 성명도 낸 경험이 있다”며 “이번 모의투표에서는 입장이 달리했지만, 이사회에서도 최소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당부했다.

총학생회 역시 제도권 내 학생 투표권 보장을 요구했다. 비대위 백유진 위원장은 “실제로 투표를 위해 오신 학생도 주변에 투표결과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것인지 의문을 가져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이 많다고 전했다”며 “제도권 내 투표권이 보장됐다면 홍보 자체도 학교 차원에서 진행돼 투표율도 훨씬 높아졌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외대는 교수협의회에서 투표를 진행하고, 1위 추천자를 총장 후보로 이사회에 추천한다. 이를 이사회가 임명으로써 총장을 선출하고 있다. 교수협의회에서 진행하는 투표결과를 이사회에서 반영해야 한다는 규정이 따로 존재하는 바는 없다.

이에 정준애 부지부장은 “당시 이사회 선임 방식을 대신해 교수 직선제를 탑재한 후 받아들였다”며 하지만 “25년 동안 그마저도 비민주적이고 나머지 구성원이 대학운영에서 소외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평

가했다. 이어 “관행이라며 학교 운영의 실질적 권한을 이사회와 교수들이 독점하고 있다”며 “노조 탄압을 진행했던 총장이 2차례나 선출되고, 결국 작년에 유죄판결이 났음에도 자성의 목소리는 전혀 없었다”고 현 상황을 강하게 비판했다.

교협 측이 총장선출 방식을 바라보는 시각은 이들과 온도 차가 있다. 이번 총장선출 과정에서 규정을 바꿀 시점은 이미 넘어섰고, 제도권 내 투표권이 없다고 해서 나머지 구성원들이 소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교수협의회장 김은경(법학) 교수는 “총장선출 방식 변경은 4년 전부터 준비가 필요해 지금 시점에서 논의할 내용은 아니다”며 또한 “학생들이 자신들의 대표부터 선출해 정비한 이후 총장선거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규정을 유지하되 논의 테이블을 마련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김은경 교수는 “소외라고 느낄 수 있지만 향후 다양한 방법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며 “제도권 내의 투표권이 아니더라도 같은 학내 구성원이라는 점에서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밝혔다.

학생 모의투표 결과가 실제로 이사회 결선 투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교수협의회 측에선 이사회 측에서 결정할 일이라며 말을 아꼈다. 학생들이 각각 1, 2위로 뽑은 유기환 교수와 유태영 교수가 교수협의회 1차 투표의 결과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이사회는 관행적으로 1위 후보를 총장으로 선임해온 바 있어 향후 논의의 귀주가 주목된다.

서교련 “언론사 대학평가 당장 중단하라”

신정인 기자 sj0201@knu.ac.kr

지난달 25일, 사단법인 ‘서울소재대학교 교수회연합회(서교련)’가 창립총회 및 정책포럼을 열고 언론사의 대학평가를 반대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고려대, 경희대, 서울대, 숙명여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국어대, 한양대 등 9개 대학의 교수대표가 모여 결성한 서교련은 언론사의 대학평가가 대학 운영 전반을 왜곡시키며 평가지표 또한 그 공정성과 타당성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서교련은 지난 6일 성명서를 통해 대학이

“연구와 교육이라는 대학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지 않고 획일적 평가기준을 중심으로 인적·물적 투자를 하고 있다”며 “평가순위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불필요한 재정 출혈로 인해 교직원의 임금과 복지가 악화되며 저임금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언론사의 대학평가 평가지표는 각 대학의 객관적 상황을 왜곡하고 대학의 개혁을 잘못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다”라며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한 평가지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대학평가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며 “대학의 설립 이념과 규모, 지역 특성을 고려한 새

로운 평가지표를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대 이사장을 맡은 우리학교 교수의회 이성근(관광대학원) 교수는 “각 대학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평가지표를 통해 평등적인 평가를 하는 것은 당연히 모순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언론사 대학 평가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 교수는 “정책포럼이나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언론사 대학평가 문제뿐 아니라 학교법인의 재단개혁문제, 교수들의 교권 문제 등을 다룰 예정”이라며 “각 대학의 공공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길을 찾는데 힘쓸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2017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개설 안내 (서울캠퍸스, 국제캠퍸스)

1. 계절학기 주요 일정

구분	일시	비고
개설과목 확인	2017.11.01(수)	본교 홈페이지 학사안내 게시판에 ‘2017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시간표 공지’ 참조
학점교류생	추천기한 : 2017.11.24(금) 17:00 까지 학번부여 : 2017.12.01(금)	학번부여 SMS 안내 문자 발송
수강신청기간	2017.12.14(목) 10:30 ~ 12.15(금) 17:00	본교 홈페이지 오른쪽 하단의 ‘계절학기 시간표 및 수강신청’ 링크 클릭
폐강공고	2017.12.15(금) 12:00 (1차) 2017.12.21(목) 09:00 (2차)	경희대학교 홈페이지 ‘학사안내’
등록금 납부기간	2017.12.18(월) ~ 12.20(수) 16:00	하나은행 가상계좌로 납부
수강정지기간 (폐강과목 수강생)	2017.12.21(목) 09:00 ~ 17:00	후마니타스칼리지 행정실 방문 (2차 폐강과목 수강자에 한함)
수업기간	2017.12.22(금) ~ 2018.01.16(화)	
성적열람일	2018.01.16(화) ~ 01.19(수)	
성적정정일	2018.01.18(목) ~ 01.19(금) 15:00까지	

2. 수업안내

· 수업시간

구분	학점	교시	시간대	구분	학점	교시	시간대	
서울 캠퍸스	1학점 (실기)	1교시	10:00~11:50	국제 캠퍸스	1학점/ 3학점	온라인강좌	온라인강좌	
	2교시	13:00~14:50						
2학점	1교시	10:00~11:50	3학점	1교시	09:00~11:45			
	2교시	13:00~14:50						
	1교시	09:00~11:45				2교시	13:00~15:45	
	2교시	13:00~15:45						

* 시간표 및 강의계획서 확인: 2017.11.01(수) 본교 홈페이지 ‘학사안내’ 게시판 참조

3. 수강신청

- 수강 가능 학점: 최대 6학점
- 1) 국제교류처, 취업진로지원처 및 각 단과대학에서 방학 중 진행하는 전공연수, 어학연수, 현장연수활동은 6학점의 제한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2) 타대학 학점교류, Global Collaborative 프로그램은 6학점 범위 내에서만 가능
- 수강신청방법

- 1) 정규학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학교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학점교류생동일)

- 2) 경희대학교 홈페이지 → 계절학기 수강신청 링크 클릭 → 본인이 직접 수강신청 교과목 선택

4. 수강등록

- 등록금액: 1학점당 89,000원

- 등록방법: 경희대학교 홈페이지 → 종합정보시스템 → 등록/장학 → 등록메뉴 중 [계절학기 등록금안내] 참조

- 1) 입학사항: 학년(2017학년도, 학기) 거울학기, 학번) 경희대학교에서 부여된 본인의 학번을 입력 후 조회

- 2) 확인사항: 신청과목과 납부금액, 본인에게 부여된 하나은행 계좌번호 확인

- 3) 납부방법: 생성된 계좌번호로 등록금 납부

- 4) 등록금 납부일 이후 수납이 불가하오니 등록기간 내에 완납하기 바랍니다.

수업개시일 1/3 경과한 날부터 1/2 경과 전

2018. 1. 2(화) ~ 1. 4(목) 17:00

수강료 1/2환불

방문 → ‘계절학기 등록금 환불신청서’작성

(본인명의 통장 사본 동봉)

※ 폐강과목수강자 포함

※ 환불금액 지급예정일: 수업개시일 1/2 경과 후부터 환불신청자에게 일괄 지급함. (바로 환불 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유의사항